

## 39 건설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악성흑색종

성별	남성	나이	53세	직종	건설 기술직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1977년부터 2012년 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 오던 중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에 발생한 종괴를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악성 흑색종을 진단받았다.

### 2 작업환경

○○○의 보호자의 진술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장애 2급)가 있었으며 1977년부터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작업을 하였다. 건설현장에서 주로 목수일(거푸집 제작, 설치, 해체 등)과 단순업무를 수행하였고, 안전모나 모자 등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선크림 사용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유해 광선)

### 5 의학적 소견

○○○은 피부암 및 기타 암 가족력은 없었고, 청각장애 외에 특별한 과거력도 없었다. 상병 발생 7~8년전부터 오른쪽 눈 옆 관자놀이 부위에 피부병변(점)이 생겼고, 상병발생 2년전부터 점점 커져, 방문한 대학병원 조직생검에서 악성흑색종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광범위 국소절제술을 시행하였고, 1년후 경부림프절과 침샘에 전이가 되어

림프관청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항암치료도 시행하였다. 상기 부위에 모반이나 화상에 의한 반흔은 과거에 없었으며 음주 및 흡연은 조금씩 하였으나, 상병 발생 후 금연하였다고 진술했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1977년에서 2012년까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목수일과 단순업무를 수행하였고, 36년간 야외작업을 수행하면서 태양광선에 노출되었다. 악성 흑색종의 발생 부위 역시 태양광선에 잘 노출되는 관자놀이에 발생한 점과 더불어 특별한 가족력과 과거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